

‘제22회 인촌상’ 시상식 열려



8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제22회 인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현승중 인촌기념회 이사장,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언론출판), 이훈동 조선내화 명예회장(특별),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교육), 차하순 서강대 명예교수(인문사회학), 허영섭 녹십자 대표이사 회장(산업기술), 국양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자연과학),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동아일보 제공)

허남석 광양제철소장 ‘광양 시민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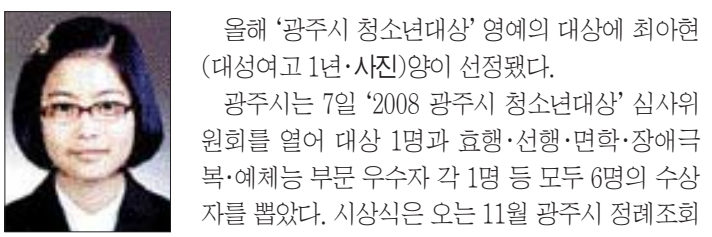
허남석(사진 오른쪽) 광양제철소장이 8일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광양 시민의 상’(산업경제 부문)을 수상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주 DJ센터서 전국 도서관대회



전국 도서관인들의 축제인 제45회 전국 도서관대회(8~10일)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참가자들이 ‘도서관문화전시회’에 진열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청소년 대상’ 대성여교 최아현양



올해 ‘광주시 청소년대상’ 영예의 대상에 최아현(대성여교 1년·사진)양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7일 ‘2008 광주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 1명과 효행·선행·면학·장애 극복·예체능 부문 우수자 각 1명 등 모두 6명의 수상자를 뽑았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광주시 정례조회에서 열린다. 전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아현은 취학 전부터 가족과 함께 장애인 시설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영유아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체 등 10여개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다음은 부문별 수상자 명단. ▲효행=심해민(삼각초 4) ▲면학=김동건(운남고 2) ▲장애극복=이경대(광주세광고교고 등동부 3) ▲예·체능=이현민(조대여교 1) ▲선행=이다은(동명중 3).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아침 초대석

‘인촌상’ 특별상 이훈동 조선내화 명예회장

“한 우물 파야 기업인으로 성공”

“기업가로서 언론과 교육·문화 사업에 앞장서고, 정치가로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촌 선생을 평소 흠모해 왔습니다. 그분의 유지를 기리는 상을 받아 더욱 기쁩니다.” 이훈동 조선내화 명예회장(전남일보 명예회장)이 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재)인촌기념회가 제정한 ‘제22회 인촌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명예회장은 조선내화를 국내 내화물 업계 정상으로 이끈 탁월한 기업 활동과 인재 양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였기 때문에 광산에서 번 돈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재간에 나섰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30여 명의 사원과 1년 넘게 공장을 복구하면서 손마디마다 피멍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조선내화는 광산에서 나오는 양질의 원료를 적기에 공급받는 데 힘입어 도야의 기틀을 다졌다.

1973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탄생은 조선내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제철소에 필요한 다양한 내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기술력이 축적됐다. 당시 일부 재벌그룹과 시멘트 회사가 내화물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포철을 공략했지만 기술력과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발을 빼야 했다. 그는 “대기업을 물리치고 2년간 장기 독립공급을 보장받았을 때 기업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약력 ▲1917년 해남 출생 ▲1953~1986년 조선내화 대표이사 ▲1964~1985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1986~1999년 조선내화 회장 ▲1984년 국민훈장 모란장

탁월한 기업 활동·인재 양성 공로

이 명예회장은 평생을 ‘내화물(높은 온도에도 견디는 비금속 재료)’ 한 우물만 판 기업인이다. 그가 내화물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 16세 때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남서 광산 견습직원으로 채용된 그는 3년 만에 광업소 지배인이 됐다. 1945년 광복을 맞으면서 광업소가 문을 닫자 그는 고향인 해남에서 농사를 지었다. “솔직히 농사꾼으로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두 털어 외국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죠. 패전국이면서도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독일과 일본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는 독일 여행에서 ‘공업 선진국일수록 내화물이 발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귀국 후 광산 2곳을 운영하던 그는 6·25전쟁으로 공장과 창고, 기계 설비 대부분이 파괴된 조선내화학공업주식회사를 1953년 인수했다. “이때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사업전망도 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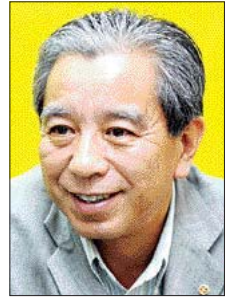
21년간 목표상의 회장 역할

이 명예회장은 1964년부터 1985년까지 21년 동안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다. 전국 최장수 기록이다. 그는 회장 재임 시절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 한국은행 목포지점 존치와 목포비행장 개항, 대불산업단지 조성 등을 꼽았다. 배우지 못한 것을 한(恨)으로 여겼던 이 명예회장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재를 털어 1977년 삼육문화재단을 설립했다. 77억 원의 기금으로 지금까지 학생 4천여 명에게 3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렇게 많은 사람 즐기는 축제 일본서는 드물어”

광주 총장축제 참석 日 미키모토 진주섬 대표 마츠다씨

세계적인 명품진주 회사인 ‘미키모토 진주’의 계열사 ‘미키모토 진주섬’(Mikimoto Pearl Island)의 대표 마츠다 오토히사(Matsuda Otchisa·52)씨가 7일 광주 총장축제를 찾았다. 미키모토 진주는 모나코의 왕비이자 유명 여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 프랑스 여배우 카트린 드브르 등 각국의 왕가를 비롯해 스타들이 사랑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한 보석이다. 일본 토바시공회소의 부회장 자격으로 광주를 방문한 마츠다씨는 “일본에도 수많은 지역 축제가 있



미키모토 진주 대표 마츠다 오토히사(사진)는 광주 총장축제에 참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는 드물다”며 “일본 토바시의 ‘미나토 축제’와 광주의 ‘총장 축제’가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어국, 송이버섯 등 특히 광주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며 “소금 간이 진한 일본의 김치보다 다양한 맛이 풍부

한류스타 배용준 문화훈장 유력시



한류스타 배용준이 문화훈장 후보에 올라 훈장 수인이 유력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8일 “배용준이 문화훈장 포상 대상으로 추천

돼 현재 각계의 검증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배용준이 드라마 ‘겨울연가’ 등 한류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 25명의 문화훈장 포상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 배용준의 문화훈장 포상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매우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용준이 문화훈장 수훈자로 결정되면 18일 총부 청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2008 문화의 날’ 행사에서 수상을 하게 된다.

‘신문 읽기 스타’에 영화배우 김수로씨

한국신문협회 선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008년 ‘올해의 신문 읽기 스타’에 영화배우 김수로씨를 선정했다. ‘연예계 최강 입담’으로 불리는 김씨는 요즘 영화계 뿐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는 그 배경에 대해 “신문의 덕을 토포하 봤다”고 말한다. 전문 방송 MC로 조차 그의 재치와 독특한 언어구사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김 씨는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이야기하면 신선함과 재미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신문 읽기가 어휘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코믹연기의 비결은 바로 ‘공부’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 쫓기는 그에

계 신문은 세상 흐름과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려주는 교재이다. 그는 “신문에는 사회 이슈와 세상은 이야기 등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넘쳐난다”며 “수많은 정보를 매일매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기자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고마움마저 든다”고 했다. 그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는 ‘2008 전국 NIE 대회’에서 열리는 ‘올해의 신문 읽기 스타’ 상을 받게 되며, 그 자리에서 ‘신문과 나’라는 주제로 신문에 대한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평생학습 축제 홍보대사 영화배우 박진희 위촉



오는 17일 순천만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7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홍보대사에 영화배우 박진희씨가 위촉됐다. 교과부는 박씨가 바쁜 일정에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앞으로 신문과 언론 인터뷰, 축제 개막식 날 체험 프로그램 참여, 팬 사인회 등을 통해 평생 학습 축제를 알리는 일을 맡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지광한기자 light64@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학측

- ▲곽용선씨 장남 민근(신한은행 전주지점)군 김용식씨 장녀 민경(영광군청)양=11일(토) 낮 1시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주봉원(광복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씨 장남 용환군 병열중씨 장녀 진경양=11일(토) 낮 1시30분, 남구 봉선동 고백교회. ▲손명자씨 차남 서한성군 김집숙씨 3녀 장미례양=12일(일) 낮 12시 베니스웨딩컨벤션 1층 꿈에그린홀. ▲노병록씨 장남 훈중군 유상윤씨 장녀 혜진양=11일(토) 낮 12시 50분 베니스웨딩컨벤션 1층 꿈에그린홀. ▲최준연씨 장남 태희(광주 중앙도서관)군 김인기씨 장녀 현옥(전남 도산서관리위원회)양=12일(일) 낮

12시30분 상록웨딩홀 4층 장미홀.

- 동창·동문회 ▲복성중 9회 동창회(회장 장우성) 월례회=9일(목) 오후 6시30분 해태식당. 062-655-3688. ▲동신고 총동창회(회장 손철봉) 체육대회=12일(일) 오전 9시 모교 종합운동장. 011-647-9977.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12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 운동장. 062-224-1461. ▲목포중·고등학교 재광 동창회(회장 최영중) 제2회 비룡 광주 체육대회=12일(일) 오전 10시 광주교대 다목적회관. 062-222-0030.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정영환) 한마음 대축제=12일(일) 오전 8시 30분 송원동 송원대학 잔디구장. 011-212-2900. ▲조대부고 20회 동창회(회장 임

성기)=12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 운동장. 부부 동반. 011-717-4792. ▲학다리중·고 광주·전남 동문 체육대회=12일(일) 오전 10시 광산구 삼도초교 운동장. 011-620-1198(박춘일).

중진회

- ▲남양승씨 광주 중진회(회장 송찬일) 월례회=9일(목) 오후 7시 쌍촌동 소담식당. 062-375-1429, 010-4660-4170. ▲재광 영광김씨 중진회(회장 김인규) 월례회=9일(목) 오후 7시 백운산회관. 062-222-4569, 011-640-5224. ▲전주최씨 광주·전남 대동 회수회=11일(토) 오전 11시 광주공원 뒷편 전주최씨 회수정. 017-602-2867.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모집 ▲수공예 전문 공방 ‘루치킨델라’

수강생 모집

- =양초·천연비누·매듭·에벤골씨, 광산구 월곡동 운남중공 9단지 입구 오페라텔빌딩 1층. 062-959-3252. ▲고영우&박미숙 댄스스포츠 스쿨 수강생 모집=회원 수시 모집, 동구 학동 병무청 앞 영동빌딩 303호. 062-526-804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 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62-572-0129. 부음 ▲정문례씨 별세 이훈(전 무등일보 주필)·중훈(수북중 교사)·영훈(삼상사 대표)·용연(서강정보대학 입학처장)·민연(개인사업)·옥연(서강대 중국학과 교수)씨 모친상 전속회·신영자·임병순·황성원(치병중)·강승희·김혜영씨 시모상 오병호·최규삼·한경수씨 빙모상=발인 11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장광영(전 광주일보 논설위원)

씨 별세 원택·상택(신우회계법인 세무사)씨 부친상=발인 10일(금) 천주교 봉선동성당. 062-671-8001. ▲강방춘씨 별세 신철우(광주정보고)·강자·강미(해남서초교)·강숙·강현씨 모친상 허인철·이영호·김원영(금호건설 부장)·강신기(조이스탈(주) 대표이사)씨 빙모상=발인 9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정삼례씨 별세 오정수·창수(반도기계)·갑수(영광원지력)·금수·용례·순임·순자씨 모친상 승준·대근(원주시청)·호성(반도기계)·현주(서거관리위원회)씨 조모상 송명섭(하남 철도청)·박정호씨 빙모상=발인 10일(금) 광산구 송정장례

식장 3호실. 062-941-7103. ▲류홍걸씨 별세 조수연씨 상배 재혁·혜린씨 부친상=발인 9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김공순씨 별세 김종민(동화공업사 대표)·종현·종철·옥자·옥주씨 모친상 나기천·장희춘씨 빙모상=발인 9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박홍남씨 별세 남심·남철·희순씨 부친상 김충구씨 빙부상=발인 9일(목) 광산구 송정장례식장 1호실. 062-941-4400. ▲이계흔씨 별세 승철·승우·애경씨 부친상=발인 9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대한민국 최초 신진국영 장례시스템 프리드 현대중앙상조 1688-3740